

#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에 대한 단상들

- 젠더센터 이주팀이 해 왔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림보 회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주팀’도 24년 4월에 첫 모임을 했다. 지난 7월 우춘희 연구자의 연구로 젠더센터 월례발표회를 기획한 이주팀은 이번 9월 발표회 준비도 맡았다. 작년 여름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이하 팔연대) 만나 활동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된 이 기획은 상반기부터 팔연대 쟁마 활동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서히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정착민 식민주의의 폭력을 어떻게 얘기할까

팔레스타인 전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을 테니까 꼭 하고픈 이야기들을 두루 담은 쟁마 활동가의 발제문을 받아 들고 이번 월례발표회 논의를 위해 모인 젠더센터 이주팀 구성원들은 조금 막막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잘 모르는 데다, 무력감과 죄책감으로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 그러면서도 학살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기는 두려워서, ‘학살의 와중에서도 여전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보자 했던 건 아닌지, 이런 시도 역시 대상화하려는 시선과 태도에서 시작된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나눴다.

발표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중 페미니동아카데미에서 팔연대 덩야핑 활동가의 강의가 열린다고 했다. 그 강의에서 마주친 “팔레스타인 문제를 제외하면 진보적”이라는 문구 앞에서, 특히 지난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인권, 이주민 이슈, 성노동만 빼고 진보적’인 상황을 너무 많이 마주했던 한 활동가로서, 크게 공감했다. 이주민, 홈리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청소년을 향한 억압과 농성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을 폭력으로 막아서는 공권

력은 이스라엘 지배자들의 폭압과 아주 닮았으니까.

### **고통을 연결하기 1. 자원 착취와 권리 박탈이 가능한 계층적 권력 구조라는 공통점**

국가 간 관계인지,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관계인지에 따른 범위와 규모의 차이를 살펴더라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정착민 식민주의와 임금 가부장 체제 사이를 연결해 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한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고 자원을 빼앗는 데다, 이러한 통치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갖가지 논리를 세우는 것을 ‘식민성’의 주요 성질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임금 가부장 체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정착민 식민주의는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통치하는 것을 넘어, 지배하려는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자신들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송전탑을 짓느라 삶의 터전을 뒤흔거나, 공항을 지으려고 비인간동물의 서식지를 몰수하는 것, 개발로 인한 이윤을 편취하려 선주민과 상인들을 내몰고 자행하는 철거 등등 한국사회에서 벌어졌거나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역시 정착민 식민주의의 양상을 띤다. 정착민 식민주의에서 선주민들은 지배 대상이면서 지워야 할 존재가 되며, 정착하고자 하는 땅을 ‘임자 없는 땅’으로 만들어 빼앗기 쉽게 만들고자 한다.

### **고통을 연결하기 2. 군사주의와 정착민 식민주의의 결합**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령과 분리 정책에 따른 단절과 고립 속에서 생존과 저항은 다른 말이 아닐 것이다. 정착민 식민주의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군사주의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무력 동원으로 드러난다. 군대와 정착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공간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 통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 활동을 억압한다.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불리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정치적인 분쟁이 아니라, 폭력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땅을 빼앗은 ‘점령’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억압을 심화시키는 복합적인 사건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사주의가 일상 깊숙이 스며 있다. 군대식 규율과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주의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나 다양성 보다는 집단의 이익이나 상명하복 질서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이러한 문화는

노동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다. 말하자면 군사적 가치관이나 개발 논리는 약자들의 노동력을 손쉽게 착취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소식이 끝없이 전해지는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표현하기조차 힘든 그 참혹한 폭력 앞에서, 그곳의 폭력과 우리가 겪는 폭력은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너무 폭력적일 수 있을 테다. 이런 말을 하는 나는, 우리는 단지 '괜찮은 사람' 스티커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

월례발표회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을, 참혹한 사건이라는 묘사는 되도록 피하면서 이야기해 보자는 이주팀의 고민은 사실 그리 단순하지는 않았다. 진짜로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찾아가 보고 싶은 갈망과 고민들. 우리도 식민성이 깃들인 착취구조 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성찰, 게다가 집회를 잘 챙겨 나가지 못한다는 부채감, 이 활동에 매진하는 동료활동가들에 대한 미안함.

## 구원자 서사를 넘어

어떤 소수자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 현실을 되게 비참한 걸로 만들고 거기서 그들을 구해 주고, 보호하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돌파하고 싶었다. 우리는 타인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야기 역시 그런 방식으로 소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혹은 두려움이 있다. 사실 이러한 의구심과 두려움은 이주팀 내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논의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주팀이라서 팔레스타인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해 온 고민들과 만들어 낸 접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BDS를 비롯해 국내 기업의 집단학살 공모에 대해, 젠더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연대의 방식을 찾아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 